

AUTHOR 신복윤

TITLE 칼빈사상에 있어서의 자연신학의 문제 (I)

IN 신학정론(Journal of Reformed Theology)
vol.3 no.6 (February, 1985):371-380

리의 성경권위 교리에 반대되고 있다. 자유주의 편집비평 학자들은 몇가지 “삶의 정황”을 구별하고, “역사적 예수”와 “믿음의 그리스도”를 구별하여 연결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것을 거절한 주장과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관을 영감된 저자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고 함을 배척하는 전제하에서 편집비평은 그 근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말하신 말씀에서 그 권위를 상실하고 다만 몇가지 “삶의 정황”에서 조종된 산물르만 보고 있다. 편집비평의 중심된 목표는 자기들이 세운 어떠한 크라이테리아(criteria)에 기준해서 예수의 말씀을 발견하려고 한다.

복음주의 성경권위가 요구한 문법적·역사적 해석법이 성경 자신이 증거(눅 1:1-3; 요 21:25)한 것, 곧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 구두 혹은 기록된 전통으로 존재했던 것을 편집비평이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한다. 그러나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없어지고, 다만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 성경권위가 주장하는 것은 남아 있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자체라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다른 학문연구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이 편집비평은 보편적인 도움을 주기는 하겠지만, 그보다 더 문법적·역사적 해석법은 비록 세련이 요구되지만, 복음주의 학자들이 추적할 방법인 것이라고 우리가 포용하고 있는 성경권위관이 가르치고 있다.

결론적으로 편집비평은 브레더(Wrede)와 벨하우젠(Wellhausen)의 주동하에 세운 과격한(radical) 견해로, 복음서는 역사적이 아니고, 다만 신학적 조작이며, 예수의 생활을 알려주는 근본 자료(a primary source)가 아니고, 역사적 환경을 보도하는 자료라는 결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문법적·역사적 해석이 발견한 성경 자체의 주장인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님 자신의 결정적이고, 기적적인 사역으로 보는 것이다. 역사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내용을 전파하는 선포는 필연적으로 역사적인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동시에 교리적인 것이다. 따라서 편집비평과 다른 고등비평이 주장하는 전제인 역사적 예수와 교리(믿음)적 그리스도 사이에 반경험(antithesis)이 놓여 있다는 전제는 성경 자체가 배척하고 있는 것이다.

칼빈사상에 있어서의 자연신학의 문제(I)

신 복 윤
 (교수·조직신학)

머릿말

특별게시가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 中心의 계시라고 한다면, 일반계시는 自然, 人間, 歷史에서 주어진 계시를 의미한다. 그리고 自然神學(theologia naturalis)은 일반계시에 기초하여 자연 또는 理性을 통하여 얻어지는 眞理를 신학의 자료로 삼는 신학을 말한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특별계시와 이에 대한 성경의 증거와 관계없이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 知識인 것이다. 자연신학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일반계시와 동일한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자연신학의 문제는 宗教改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贊否로 오랫동안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칼빈은 과연 자연신학을 찬성하고 있는가? 自然神學의 가능성, 자연신학에 있어서의 하나님 知識, 하나님 지식에 미친 罪의 영향, 자연신학의 機能, 자연신학과 特別啓示와의 관계 등을 차례로 논하

면서 칼빈의 자연신학 사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I. 자연신학의 가능성

칼빈은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인정했는가? 학자들에 따라 칼빈을 보는 눈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칼빈이 그 가능성을 인정한다고도 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도 말한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칼빈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자신을 세계의 손構造에서 나타내 보이시며, 매일같이 자신을 밝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눈만 뜨면 하나님을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¹⁾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영광의 표가 새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너무도 분명하고 독특하고 찬탄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둔하고 무식한 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無知를 핑계할 수 없게 된다.”²⁾고 하였다. 이 지식은 자연과 역사와 인간에게서 볼 수 있는 계시이다.

그러나 이 啓示에서 참된 知識을 얻을 수는 없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이 세계의 구조에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들은 헛되어 빛을 발한다. 그러므로 그것들 자체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에 전혀 충분하지 못하다. “창조의 역사는 수많은 밝은 등불을 켜서 창조주의 영광을 비추어주고 있으나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에는 충분한 것이 못된다.”³⁾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內面的 啓示에 의하여 신앙으로 照明되지 않는 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각할 만한 눈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우리에게는 마땅히 세계의 창조주 앞으로 인도하는 다른 하나의 훌륭한 助力者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게 하시며,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위해 말씀의 빛을 주신것은 불필요한 일이 아니었다.”⁴⁾ 이렇게 칼빈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데 있어서는

1) *Inst.*, I. 5. 1(이것은 기독교강요 제 1권 5장 1절을 의미한다).

2) *Ibid.*

3) *Inst.*, I. 5. 14.

4) *Inst.*, I. 6. 1.

안될 聖經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성경을 眼鏡으로 비유하고, 이 안경을 통해서만 참 하나님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인이나 視力이 약한 자들은 아무리 아름다운 책을 펴 놓아도, 그것이 무슨 말이 써어져 있는 책으로는 느낄런지 모르나, 아마 두 글자도 읽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안경의 도움을 얻으면 분명하게 읽어 내려 갈 수가 있을 것이다. 즉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혼란된 관념들을 우리 마음에서 하나로 집중시켜 주고, 흑암을 쫓아버리며, 참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견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⁵⁾ 그래서 칼빈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놀라운 劇場의 觀眾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야 하지만, 그러나 더 귀중한 유익을 얻기 위하여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⁶⁾고 강조하였다.

칼빈은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변호하기 위해 기독교강요 제 1권 5장 全章을 할애하였다. 워필드(Benjamin B. Warfield)에 의하면, 칼빈은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聖靈으로 증생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가능하나, 非重生者인 自然人에게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칼빈의 입장이라고 워필드 박사는 해석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물론 칼빈은 신학다운 신학의 근거를 성령에 의해 마음의 눈이 열리지 못하고, 성령의 증거를 받지 못한 자연인에 의해 自然啓示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칼빈은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부정하였다.”⁷⁾ 또한 신학자 故벨카우워(G.C. Berkouwer)도 워필드의 같이, 칼빈은 일반계시가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익하지만 자연인에게는 무익한 것으로 보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워필드와 다른 것은, 칼빈이 자연신학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벨카우워에 의하면, 칼빈은 로마서 1:20을 근거로 해서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神意識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無知를 구실로 자신을 핑계할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리만치 미개한 민족이나 야만적인 종족은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

5) *Ibid.*

6) *Inst.*, I. 6. 2.

7) *Calvin and Augustine* (Philadelphia: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56), p. 114.

러나 칼빈은 또한 “宗教의 씨앗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심어졌다는 사실은 경험이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자기가 받은 바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백에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이고, 더우기 그 씨앗이 자라 성숙하여져서 적당한 시기에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⁸⁾고도 하였다. 이점으로 미루어보아, 칼빈은 一般啓示의 實在性은 인정했으나 自然神學의 可能性은 부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벨카우워는 주장하였다. 그리고 칼빈은 항상 知的인 것과 實在인 것, 아는 것과 존재하는 것을 예리하게 구별했다고 그는 주장하였다.⁹⁾ 하에른 칼빈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存在의 類推(analogia entis)를 인정하고, 피조물로부터 유추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한,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理性으로 하나님 知識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의 自然神學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그리스도 중심의 특별 계시와 함께 일반 계시를 인정하되 토마스적인 자연신학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改革派神學의 입장이다.

자연신학을 부정했던 칼 바르트까지도 칼빈은 自然神學을 인정했다고 주장하였다.¹⁰⁾ 이렇게 칼빈이 자연신학을 적극적으로 인정했다고 해서 오직 성경만(*sola Scriptura*)의 원리에 모순되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가 자연신학을 인정하므로 성경 이외의 새로운 교리나 구원에 필요한 어떤 새로운 사상을 발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意志에 관한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罪와 不信仰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으며, 따라서 定罪下에 있다고 하는 성경의 증거를 자연신학에서 찾았던 것이다. 칼빈은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키케로(Cicero)의 자연신학을 인용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¹¹⁾

8) *Inst.*, I. 4. 1.

9) G.C. Berkouwer, *General Revelation* (Grand Rapids: Eerdmans, 1973), pp. 30-31.

10) *The Knowledge of God and the Service of God*, p. 6.

11) *Inst.*, I. 3. 1 참조.

II. 자연신학에 있어서의 하나님지식

칼빈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한 知識을 神意識(sensus divinitatis), 인간과 歷史를 포함하는 外部的 世界, 그리고 良心에서 주셨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첫째로 sensus divinitatis 란 무엇인가? 칼빈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神性에 대한 理解(intelligentia numinis),¹²⁾ 하나님에 대한 맛(gustus divinitatis),¹³⁾ 또는 宗教의 씨앗(semen religionis)¹⁴⁾이란 말로 묘사하고 있다. 물론 칼빈은 이것을 영혼의 기능으로 생각하거나 지적 요소라는 관점에서 단순한 주관적 느낌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다.

sensus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하여 주신 지식(notitia)을 의미한다. 칼빈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를 다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고, 이에 대한 기억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며 확대하여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 분 하나님이 계시하다는 것과 그분이 바로 자기네 創造主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¹⁵⁾ 그래서 人間精神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다소나마 直感할 수 있다. 칼빈은 이와 관련하여 키케로를 소개한다. “저 유명한 키케로가 말한대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전적으로 믿지 않는 미개한 민족이나 야만적인 종족은 없다.”¹⁶⁾ 칼빈은 계속해서, 세계가 존재하던 날부터 宗教가 없는 나라나 종교가 없는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觀念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는 것은 無言의 고백이며, 또한 偶像崇拜 자체가 바로 이에 대한 풍부한 증거가 된다고 주장하였다.¹⁷⁾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계속 보여 준다. 그것은 대담하게 하나님을 멸시했던 칼리굴라(Caligula)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그는 자기가 멸시하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

12) *Inst.*, I. 3. 1.

13) *Inst.*, II. 2. 18.

14) *Inst.*, I. 3. 1.

15) *Ibid.*

16) *Ibid.*

17) *Ibid.*

을 수 없었다”¹⁸⁾고 칼빈은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不敬者들 그 자신이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실재하다는 사실의 例證이라 할 수 있다”¹⁹⁾

그러나 이 지적내용을 단순히 神觀念, 혹은 神知覺이란 말로 생각하면, 칼빈이 그린 sensus divinitatis의 효과를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 사람으로 하여금 宗教적으로 되게 하며, 교만하더라도 우상숭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며, 가장 대담하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로 하여금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에도 심하게 놀라게 하여 良心의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臨在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²⁰⁾ 그러므로 “저들은 주앞에서 자기를 숨기기 위하여 피난처를 찾으며, 主의 임재를 자기 마음에서 지워버리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하나, 이를 교묘히 벗어나려는 저들의 노력은 모두가 다 허사가 되어버린다”²¹⁾

칼빈은 이 sensus divinitatis의 개념의 근거를 먼저 聖經에서 찾는다. 즉 그는 로마書 첫 두 章에서 바울의 自然神學의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로마서 1:20은 sensus divinitatis 개념에 결정적인 귀결이다. 둘째로, 우리는 칼빈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빠뜨릴 수가 없다. 그는 기독교강요 제 1권 5장에서 自然에 나타난 하나님 啓示를 심오하게 묘사하고 있다. 셋째로, 칼빈은 키케로와 플라토(Plato)와 같은 古代學者들을 인용하였다. 프랑스의 칼빈學者인 웬델(Francois Wendel)이 판단한 대로 칼빈은 항상 다소는 人文主義者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²²⁾

칼빈은 이렇게 난해한 해석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神意識에 대한 사상을 적극적으로 강조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즉 인간은 상도를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唯一神에 대한 지식을 소유한다는 사상이다. 이 지식은 한 때 있었거나, 혹은 있을 수도 있었거나, 또는 “원리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認識이다. 더우기 그것은 에덴동산의 아담이 가졌던 지식이 아니라,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다.

18) *Inst.*, I. 3. 2.

19) *Ibid.*

20) *Ibid.*

21) *Ibid.*

22) Calvin: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p. 33.

둘째로, 하나님은 자신에 관한 지식을 外部的 世界에서 주셨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이 사실을 변호하기 위해 그는 기독교강요 제 1권 5장의 제목을 “세계의 형성과 그 계속적인 통치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하나님 知識”(Dei notitiam in mundi fabrica et continua eius gubernatione lucere)이라 붙이고, 창조된 세계와 歷史의 현상에서 하나님 지식을 귀납추리하였다.

외부적 세계에서 얻게 되는 하나님 知識은, 첫째로 世界의 形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自然課程에 대한 명상에서 오고, 둘째는 하나님의 世界統治에 대한 숙고에서 온다. 하나님의 이 세계통치는 주로 자연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볼 수 있다.²³⁾ 아마 창조된 세계가 그 조물주를 확실하게 증명한다는 사실을 칼빈만큼 명백하게 강조한 有神論者는 없을 것이다. 그는 시편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하늘의 광채에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생생한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²⁴⁾ 그리고 기독교강요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세계에서 나타내 보이신다고 주장한다. “행복한 생활의 완성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으므로, 하나님은 아무도 행복에 이르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미 위에서도 말한대로, 사람의 마음속에 宗教의 씨앗을 심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세계의 全構造에서 나타내 보이시며, 매일같이 자신을 밝히 보여주신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눈만 뜨면 하나님을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²⁵⁾ 세계의 창조는 “볼 수 있는 옷을 입으시고”²⁶⁾ 나타내신 하나님의 최초의 顯現이며, 광대한 하늘은 “하나님의 누각”²⁷⁾이며,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 우주는 우리가 그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명상할 수 있는 거울”²⁸⁾이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세운 劇場”²⁹⁾이며, 또한 우주는 하나님의 屬性을 보여주는 “책”³⁰⁾이라고 칼빈은 말한다.

23) *Inst.*, I. 5. 7.

24) *Com. Psalm.* 19:1.

25) *Inst.* I. 5. 1.

26) *Ibid.*

27) *Ibid.*

28) *Ibid.*

29) *Inst.*, I. 5. 5.

30) *Sermon*, Job 9:7-15.

칼빈은 또한 세계가 하나님의 지혜³¹⁾와 능력, 영원성, 자존성, 선³²⁾을 들어낼 뿐만 아니라,攝理的 통치도 역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³³⁾를 보여준다고 강조한다.

칼빈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세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타락한 인간도 사실상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아주 명백하게 역설하였던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사역에 그 영광을 또렷한 글자로 명백하게 새겨 넣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無識하고 둔한 자라도 무지를 구실삼아 변명할 수 없는 것이다”³⁴⁾ “그 天體들은 너무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이라도 그 관찰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³⁵⁾ 그는 또 이렇게 변호한다. “자기 눈 외에는 다른 데서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가장 미천하며 무식한 자라도 무한한 변화 가운데서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卓越하신 솜씨를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³⁶⁾ 그러므로 교회에 속하는 사람이 나 교회밖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찾는 方法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고 칼빈은 말한다.

셋째로, 칼빈은 하나님에 관한 知識이 良心에서 주어졌다고 주장한다. “부패한 성품속에 아직 남아있는 빛 가운데 두가지 주요한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종교의 씨앗이요, 둘째는 善惡에 대한 판별력이다. 전자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져 있고, 후자는 양심에 새겨져 있다”³⁷⁾

칼빈은 良心을 가르켜 “하나님에 대한 義務의 훈계자요 內的證人”³⁸⁾이라고 하였다. 그는 좀 더 충분히 정의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이 정신과 지성을 통하여 사물에 관한 지식을 파악하게 될 때, 그것을 ‘안다’(scire)라고 말하며, 그리고 여기서 ‘知識’(scientia, science 혹은 knowledge)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신의 罪를 숨길 수 없게 하며, 혹은 심판자의

31) *Inst.*, I. 5. 2.32) *Inst.*, I. 5. 6.33) *Inst.*, I. 5. 8.34) *Inst.*, I. 5. 1.35) *Ibid.*36) *Inst.*, I. 5. 2.37) *Com. John* 1:5.38) *Inst.*, II. 8. 1.

法廷에서 죄과를 피할 수 없게하는 증인으로서의 神的義에 대한 의식을 가지게 될 때, 바로 이 의식을 ‘양심’(conscientia)이라고 한다”³⁹⁾

양심에서 파악된 義務의 규범을 칼빈은 하나님의 의지와 동일시 하였다. “흔히 양심의 가책이 우리가 저지른 죄들을 비방하게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⁴⁰⁾ 그는 또한 양심과 하나님의 심판대를 동일시하기도 한다. “양심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⁴¹⁾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意志에 관한 지식을 갖게 된다는 것은 위에서 인용한 칼빈의 말에서 명백하나, 그 知的內容은, 칼빈이 느낀 대로 정확히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우리의 주요관심사는, 그가 모세 律法과 양심의 法, 그리고 예수님의 倫理的 敎訓과 모세의 율법을 대체로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우기 우리가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기록되었으며 새겨져 있는 內面的 律法은 두 돌비에서 배워야 하는 것과 똑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⁴²⁾ “그리스도는 경건하고 의로운 생활규범을 말씀하실 때, 모세의 율법에서 말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다”⁴³⁾

그러면 자연의 질서(ordo naturae) 자연법(lex naturae), 또는 자연율(ius naturae)과 良心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意志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분명히 칼빈은 ‘自然’이라는 말을 인간의 타락한 성질을 가리키며, 물리적 우주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것을 자주 양심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의지와 동일한 의미에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우리가 道德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자연법의 선언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새겨 주신 良心의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⁴⁴⁾ “하나님의 意志에 관한 지식”⁴⁵⁾인 양심은 사람이 “날 때부터 심어져 있는 것이다”⁴⁶⁾ 칼빈은

39) *Inst.*, III. 19. 15.40) *Com. Genesis* 4:9.41) *Com.* I Cor. 10:25.42) *Inst.*, II. 8. 1.43) *Com. Luke* 10:26.44) *Inst.*, IV. 20. 16.45) *Sermon. Job* 33:14-17.46) *Com. Romans* 2:14.

도덕법을 해석하는 기독교강요 제 2권 8장 1항에서 '내면적 율법', '양심' 그리고 '자연법'이라는 말들을 同義語로 사용하고 있다. 다시 그는 현재 인간이 소유하는 "義의 일에 관한 지식"⁴⁷⁾을 설명하면서 異教徒들도 "본성적으로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義를 소유한다"⁴⁸⁾는 바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바로 사도가 말하는 自然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자연법의 目的은 "인간으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게 하는 일이다"⁴⁹⁾라고 말하고, 곧 이어서 이 법은 "선악을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의 지각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無知를 핑계할 수 없게 하는 것"⁵⁰⁾이라고 정의를 내린다. 그러므로 죄인은 마음에 새겨진 선악에 관한 지식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칼빈은 '自然'과 양심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그리고 '자연법'과 양심의 지적내용이 되는 하나님의 意志 사이에서 아무런 갈등도 느끼지 않았다.

위에서 보아 온대로, 우리는 칼빈이 생각하고 있는 자연의 질서(ordo naturae)라는 개념이, 물리적 우주와 人間關係에서 다같이 하나님의 의지를 설명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의지가 죄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이 '자연의 질서'는 근원적인 것을 가리키며, 혹은 '부패한 본성'과 대조되는 규범적인 것을 지시한다. 예를 들면, 칼빈은 창세기 주석에서 "자연의 질서는 여자가 남자의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고 말하고, 여자는 마땅히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질서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⁵¹⁾

이렇게 자연법이라는 말로 良心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意志는 sensus divinitatis와 外部的 世界의 계시와 함께 하나님에 관한 自然的 知識의 제 3의 형식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칼빈의 사상을 살펴보았지만, 그는 自然神學의 옹호자로서 선두주자가 되기 충분함을 깨달게 되었다.

47) *Inst.*, II. 2. 22.

48) *Ibid.*

49) *Ibid.*

50) *Ibid.*

51) *Com. Genesis* 2 : 18

칼빈사상에 있어서의 자연신학의 문제(II)

신 복 윤

〈교수·조직신학〉

III. 하나님지식에 미친 죄의 영향

죄가 하나님 知識에 미친 영향은 매우 깊다. 그러면 sensus divinitatis(神意識)와 외부적 세계, 그리고 良心과 관련하여 그 영향을 차례로 살펴 보도록 하자.

칼빈은 기독교강요 제 1권 4장의 제목을 "부분적으로는 無知로, 부분적으로는 邪惡으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부패한 하나님 지식"이라 정하고 sensus divinitatis에 미친 죄의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파하였다.

종교의 씨앗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심어졌다는 사실은 경험이 증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자기가 받은 바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백에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이고, 더우기 그 씨앗이 자라 성숙하여져서 적당한 시기에 열매를 맺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 어떤 이들은